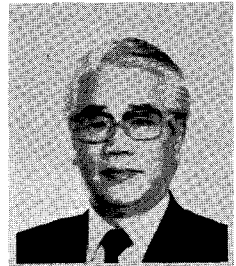


원칙론 강조보다 구체적 실행방법 강구해야



송 찬 원
축협중앙회 부회장

1. 머리말

우리나라 축산업은 '70년대부터 시작된 국가경제의 고도성장에 힘입어 국민소득이 증가되고 식품 소비구조도 곡물중심에서 축산물 등 고급 농산물의 소비증가 형태로 전환되어 감에 따라 종전의 영세부업 축산형태에서 탈피하여 질과 양적인 면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여 왔으나 주기적인 가격의 등락으로 사육두수의 증감이 되풀이 되면서 과잉, 과소생산에 의한 수급불균형의 어려움이 상존해 왔다.

특히, '80년대에 이르면서 국제 교역량이 급속히 신장되어감에 따라 많은 나라들은 자국산 농산물에 대하여 보호무역 체제를 유지하면서 상대국에

게는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신 보호주의 체제를 견지하려 함에 따라 이해를 달리하는 나라들 간에는 상호 무역마찰을 크게 일게 했으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협상 진행과정에서 수입국에 대한 농·축산물의 수입개방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89.10월을 계기로 GATT의 BOP(국제수지위원회)를 졸업하게 되었고, 또 세계 12위의 교역국으로 부상하게 된 이상 국제교역 추세에 따라 '97년까지는 대부분의 축산품목들을 개방하지 않을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내 축산업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양축 규모도 영세하고 생산성도 낮으며, 사육기술이나 시설도 낙후되어 있어 수입축산물과는 가격경쟁면

〈표1〉 국가별 가축 사육규모(호당 평균 사육두수)

	육 우	젖 소	돼 지	닭	
				산란계	육 계
한 국('91.6)	2.8두	15.7	37	9,000	8,160
일 본('91.2)	13.0	35.0	315	13,900	28,100
미 국('89)	73.0	46.0	166	9,000	-
네달란드('89)	-	47.0	-	11,250	28,600
서 독('88)	37.0	16.0	68	-	-
덴 마 크('90)	-	28.2	291	-	-
대 만('89)	-	-	147	-	-

*자료 : 농림수산부

에서 경쟁을 할 수 없는 지극히 취약한 실정에 놓여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과소비 분위기마저 고조되어 있는 속에 농촌에서는 노동기피 현상까지 발생되어 농장마다 노동인력을 구하기 어렵게 되고 임금이 크게 상승되어 생산비 상승을 크게 가중하므로 수입개방을 앞두고 우리 축산업계는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예상되고 있으나, 그렇다고 우리는 비판이나 부정만 하고 있어서는 안되므로 당면 현안사항이 무엇이고 미흡한 점이 무엇인지 현실을 직시하고 미흡점을 조속히 보완 또는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발전방향을 구상해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2. 수입개방 대응에 미흡한 점

첫째, 수입개방에 이겨 내겠다는 자신감을 상실하고 있는 점이다.

물론 국내 축산물이 수입축산물과의 가격경쟁에서 크게 열위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단시일내에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무조건 개방만하면 안된다는 주장이나 관계당국에 대한 비판만을 하고 있어서는 안된다.

축산관련인 모두는 이것이 우리업계에 주어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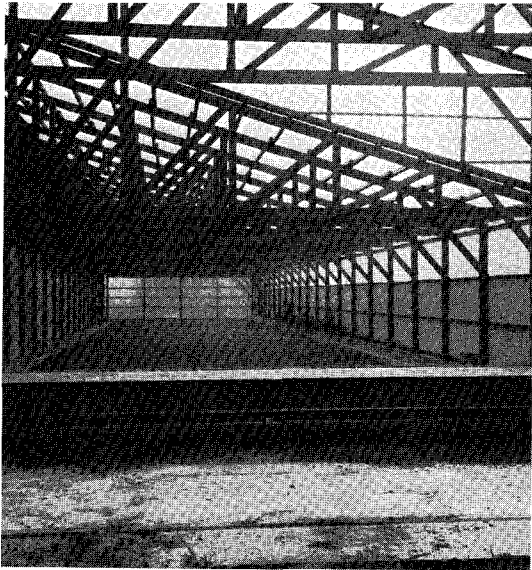
전환기적인 커다란 과제이므로 원칙론만을 강조하는 자세로부터 탈피해서 이제는 구체적인 실행방법 등을 연구, 제시해 주는 방법으로 풀어 나가야 할 것이며, 양축농가들도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경쟁이 가능한 품목도 경쟁이 불가능하다고 자신감을 상실하거나 포기하려는 것은 크게 잘못된 사고방식이라 생각한다.

둘째, 규모의 영세성, 기술수준의 낙후, 농촌노동력 부족 현상의 심각성이다.

국제경쟁력을 조속히 갖추기 위해서는 완전한 시설과 장비의 현대화와 자동화를 갖추고 가족노동력에 의한 전업규모의 축산업이 정착되어야 하나, 대부분 농가의 사육규모가 부업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경영효율을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축개량, 사양관리, 경영기술, 기계, 장비 등이 낙후되어 있고 젊은 농촌노동력의 도시이동 또는 축산노동 기피로 고용 노동력 확보의 어려움이 심각하여 생산비 절감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셋째, 축산물가격 지지 기능 미약과 유통구조의 낙후 및 전근대성이다.

가격안정제 제도의 미정착에 따른 주기적인 가격의 등락 반복으로 사육의욕이 감퇴되고 안정적



인 축산경영 여건의 미비로 기술향상과 생산성제고 노력이 고양되지 못하여 장기간 양축하겠다는 의지가 감소되어 있다. 또한 도축시설의 비위생성과 전근대성, 도매시장 기능의 미흡과 시설나후, 육류 등급제 등 품질보증 제도의 미정착 등 유통구조 개선이 부진한 실정이다.

넷째,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 규제 강화에 대한 대응태세 미흡이다.

최근 수질환경보전 문제가 사회문제로 크게 부상되면서 축산업의 규모화와 집단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축산폐수처리 기준의 강화를 위한 환경관계 법령은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추진되고 있으며 이제 대비하기 위한 축산폐수 처리시설 비용, 운영자금 등 많은 투자가 요청되고 있으나, 양축농가의 자기부담 능력 부족과 정부의 재정지원 미흡 등으로 양축농가의 수용태세가 미흡한 실정이다. 게다가 축산폐수처리 시설을 하려 해도 대부분의 축사가 무허가 축사로 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양성화 조치가 없는한 동 시설을 갖출 수 없게 되어 있다.

다섯째, 축산인 상호간의 협조체제 미흡이다.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근본적으로 우리 축산업은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부업중심의 축산형태를 가족노동 중심의 전업화로 육성하고 도축시설 및 도매시장 등의 시설들을 우선 근대화해야 하며 공장폐수와 동일시하고 있는 가축 배설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해서 유기자원화하는 등 조치를 선행해야 할 것이나 이를 모두 이해하고 또 시설근대화를 부르짖고 있는 양축농가들도 이들 축산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려 하면 혐오시설이라 하여 설치를 무조건 반대하면서 설치를 지연시키거나 아예 설치조차 못하게 하여 근대화 추진을 지연시키고 있는 점 등이다.

3. 금후 발전방향

첫째, 파생적인 개방화 물결에도 이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양돈, 양계는 구조개선, 시설·장비 등의 현대화의 자동화를 통해서 현재수준보다 약간 생산비를 낮출 수 있도록 하면 외국과 충분히 가격경쟁이 가능하며, 쇠고기, 우유 등은 가격경쟁이 어렵더라도 품질경쟁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정부나 축산관련기관에서는 양축농가가 자신감을 갖고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조속히 연구하여 지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축산업의 구조개선과 사육기술의 향상이다.

우리 축산업은 아직도 부업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조속히 가족노동 중심의 전업규모로 전환하고 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와 자동화를 통하여 노동력 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가축개량의 지속적이고 확실한 추진으로 단위당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축산업계의 부단한 노력과 연구를 통하여

사육기술을 향상시킴으로써 국제경쟁력을 배가시키는데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셋째, 축산물가격 안정과 축산물의 상품성 향상이다.

축산물가격 안정제도의 조기정착으로 가격잔폭을 최소화하여 축산업에 대한 투기성향을 없애고 양축농가가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양돈업의 경우 인접국인 일본이 세계 최대의 돼지고기 수출시장으로 되어 있다. 품질면이나 지리적인 면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시장 진출에 가장 유리한 여건에 놓여 있음에도 대일수출이 극히 미미한 것은 국내 돼지가격의 불안정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축산물의 고급화를 통한 상품성 제고, 상품의 다양화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소비자로서 하여금 우리 축산물을 선호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유통구조의 획기적인 개선이다.

우리 축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유통단계의 축소와 유통시설의 근대화가 하루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도축장 시설의 근대화 와 권역화로 식육유통센터화 하여 도축, 가공, 비축, 판매 등 식육유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축산물 공판장 증설 및 기능강화를 통하여 대 소비자와 연계한 산지 육류 공급시설 확충과 생축 수송에 따른 감량, 폐수, 악취 등 공해문제를 해소 하고 도축부조리 요인을 제거하여 공정거래가 정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위생적이고 신선한 축산물 공급을 위하여 생축유통 체제를 지육 및 부분육 유통체제로 전환 하여야 하며, 고급육 생산을 유도하고 엄격한 육질 검사를 통한 부정육 유통을 방지하여 육질에 의한 공정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육류 도체 등급제

를 조속히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축산폐수처리 시책의 적극적인 추진이다.

국내산업 발전에 따른 폐수의 발생 증가로부터 국민생활 환경과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폐수처리시설 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톱밥발효돈사, 유기질비료공장 시설 등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한 시설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며 간이정화조 등 개별 농가에 대한 지원과 비료공장, 공동저장탱크 등 공동처리시설 설치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이고도 다각적인 지원 시책을 강구하는 한편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축산폐수처리 기술을 개발, 보급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축산업구조개선사업, 유통구조개선, 축산폐수처리사업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소극적인 지원 체제에서 탈피하여 획기적이고 과감한 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맺음말

현재 우리 축산업의 현실이 매우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축산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하여 끊임 없는 연구와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정부를 중심으로 축산관련기관 및 단체가 모두 힘을 합하여 앞으로의 발전대책을 지속적이고 착실히 추진하여 가족노동 중심의 전업규모 농가육성, 시설·장비의 현대화 및 자동화, 축산물의 상품성 제고, 유통구조의 획기적인 개선 등이 이루어지고 양축농가, 정부생산자단체, 학계 등이 시련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가질 때 파도같이 밀려오는 수입개방화 물결을 우리 힘으로 헤쳐 나가면서 우리 축산업의 밝은 내일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 축산업의 앞날은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안기**